

기대 못 미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 15.5%...부산 27%에 크게 뒤쳐

가족 동반 이주 저조 ... 공공기관장 5명은 이주 안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혁신도시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 동반 이주도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기사 3면>

국회예산정책처가 7일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지난해 기준 15.5%로 부산(27.0%)·경남(18.8%)·대구(16.5%) 혁신도시에 이어 4번째에 그쳤다. 상임직원을 차지한 혁신도시는 모두 영남권이어서 혁신도시 간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지난 2014년 11.2%에서 4.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이주 비율은 계획(5824명) 대비 90.7%(5281명)로 전체 혁신도시 평균 82.6%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족동반 이주비율은 26.7%(1408명)에 불과, 전체 평균 26.6% 수준에 머물렀다.

무엇보다 이주 목표(계획) 직원수가 5800여명으로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의 혁신도시 목표 수준인 7000여명에 못 미쳐 보다 적극적인 이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계획 대비 실제 이주 직원 비율이 70.4%(240명 중 169명)로 저조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가족동반 이주율이 8.3%(121명 중 10명)에 머물러 전체 이전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정착에 가장 앞장서야 할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 공

공기관의 기관장 11명 중 단 6명(54.6%)만이 이주를 한 상태여서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족한 교육과 정부 여건을 확충해서 직원 이주를 늘려야하고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 및 교육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총사업비가 8조9000억원이 들었다. 지난해말 현재 107개 이전 대상기관 중 89개(83.2%)만이 이전했으며 광주전남혁신도시에는 13개 이전대상 기관 중 11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내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힐러리,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롱비치 유세장에 도착, 환영하는 지지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타운 조성 나선다

TF팀 이달 중 구성기로

광주시 동구가 아시아문화타운 조성에 나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한국과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7일 동구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문

화전당 인근에 관광객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아시아문화타운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구는 아시아문화타운에 각국의 전통 문화를 주제로 한 국가별 테마마을, 아시아 다문화학교 및 다문화주거단지, 문화·가족·음식을 체험·교류하는 체류형 관광지 등을 담는다는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남도전통문화와 아시아권의 다양한 문화가 특화, 융합·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동구는 기초자료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인천차이나타운, 대구근대문화골목타운 등 지자체나 민자유치로 조성된 타지역 우수사례를 수집 중이다. 또 이달 중에 교수, 도시·문화 전문가, 각 부서 담당자 등으로

아시아문화타운 조성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매달 전문가 회의 개최를 계획한다. 동구는 전문가 TF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내에 주민 설명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 아시아문화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다는 목표다.

동구 관계자는 "문화전당 개관으로 매년 167만명의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연예술과 전시중심의 문화전당과 차별화하면서도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시작부터 '유령 국회'

20대, 원구성 협상 실패...국회의장단·상임위 소속 위원 없어

'일하는 국회'와 '협치'를 화두로 내세운 제20대 국회 첫 임시회가 7일 소집됐지만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 국회'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여야는 원 구성 마감 법정 시한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놓고 대립하면서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당 간 협상에 진척이 없자 이날 오전 자유투표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 급랭과 함께 국회 공전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날 예정했던 본회의 소집과 국회의장단 선출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와 3당 체제라

는 새로운 구도로 출발한 20대 국회 역시 스스로 만든 법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국회는 지난 1994년 6월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국회 임기 개시 이후 7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은 최초 집회 이후 3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지만, 지금까지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다.

정치권에서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와 3당 체제에 따라 협상이 어려워지면서 역대 가장 늦게 원 구성이 마무리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서 20대 국회는 헌법상 기본법무인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국가 예산 및 결산 심사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가슴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등의 현안 청문회 개최도 늦어지고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등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려대 폐교·서남대 의대 폐과

<광양>

2018학년부터...타대학 편입학

대학교조개혁 평가 후 첫 사례

광양지역 4년제 대학인 한려대가 오는 2018학년부터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대학교조개혁 평가를 시작한 이후 자진 폐교를 결정한 대학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서남대 옛 재단이 학교 정상화 방안으로 한려대를 폐교(廢校)하고 서남대 의대를 폐과하는 내용의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흥하씨의 교비 횡령과 정부의 부실대학(E등급) 지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남대 재단의 정상화 방안에는 한려

대를 자진폐교해 설립자가 횡령한 교비 330억원을 보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려대 입학정원은 370명 규모로, 폐교가 결정되면 교육부와 협의해 교육여건이 좋은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남대 의대도 폐과하고 녹십자병원과 남광병원, 남원병원, 옛 광주예술대 건물과 수익용 재산 등 약 460억원 규모의 유류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해 교육여건 개선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폐과가 확정될 경우 의대생은 협의를 거쳐 인근 의대로 특별 편입된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교육부의 컨설팅이 진행 중인 만큼 컨설팅을 마친 뒤 이번 정상화 방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셀소비, 30년만에 '반토막' >2면

한빛원전 쌓이는 핵폐기물(중) >6면

'삼시세끼' 차츰마 돌아온다 >19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2016 내가슴愛약속

내 가슴의 건강을 지키는 아리따운 실천

광주 상무시민공원 6월 12일(일)

종 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양말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 9744

참가신청 선착순 접수 http://me2.do/xRtD1LuJ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을 입력하세요.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양말>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 헤라, 아리따움, 르까프

AMOREPACIFIC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